

## 디지털 인프라 접근성에 성별·계층 격차 존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성인지적 접근 필요

### 중장기 사회 변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김선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 부연구위원), 정윤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 연구원)

- 디지털 전환의 시기를 맞아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의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성별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는 양성평등 정책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본 조사는 우리 국민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디지털 접근성 및 활용도 측면의 성별 격차를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중장기 전략 수립 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만 18세~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함.
- 조사 결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하였고 일자리에서의 디지털 접근성 및 활용도에는 성별 격차가 크지 않으나, 개인용 컴퓨터 소유와 같은 인프라 측면에서는 성별 격차가 존재하였으며 특히 주관적 계층이 낮은 집단일수록 이러한 성별 격차가 더욱 커짐을 확인함.
- 따라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임금·소득에서의 성별 격차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조사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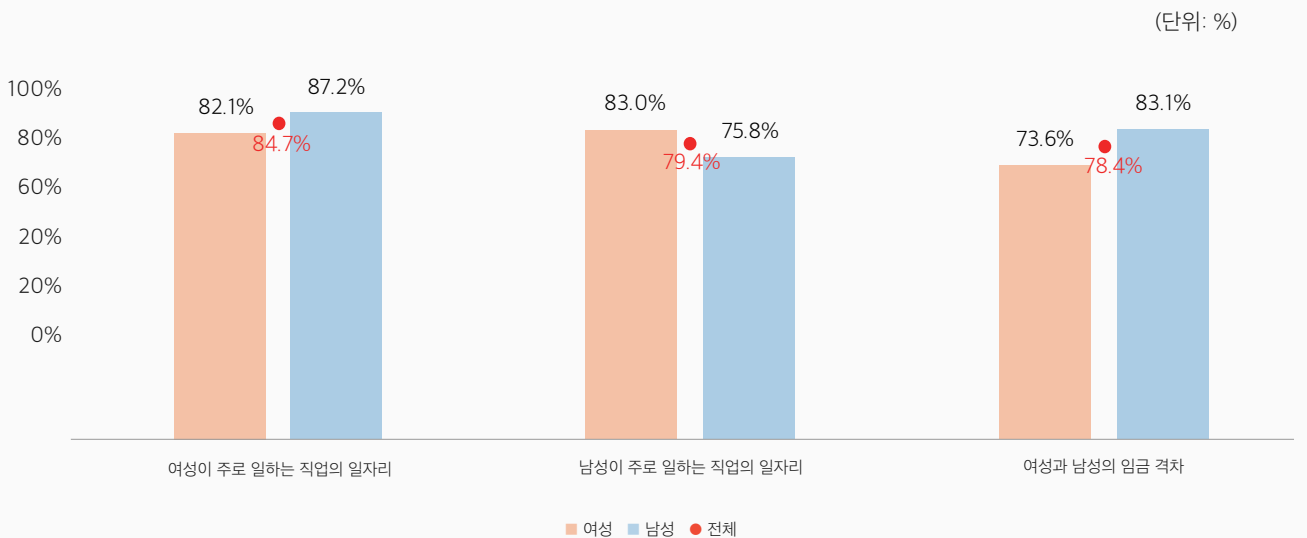
구분	내용
대상	전국 만18세~69세 성인 남녀 5,000명
방식	온라인 패널 기반 웹조사
표본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표본 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기간	2022년 1월 5일~1월 20일
조사내용	중장기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성평등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향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 ● 국민 대다수가 디지털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성별 인식 격차 존재

- 10명 중 약 8명이 디지털화에 따라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의 일자리(84.7%)와 남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의 일자리(79.4%)가 현재와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는 현재와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78.4%)이라고 응답함.
-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남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긍정적으로 전망하였고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긍정적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러한 성별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그림 1> 디지털화에 따른 사회 변화 전망(n=5,000)\*



(단위: 점)

구분	여성	남성	t값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의 일자리	3.25	3.37	4.546***
남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의 일자리	3.13	2.97	-7.205***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3.07	2.84	-10.188***

\* $p < 0.05$ , \*\* $p < 0.01$ ,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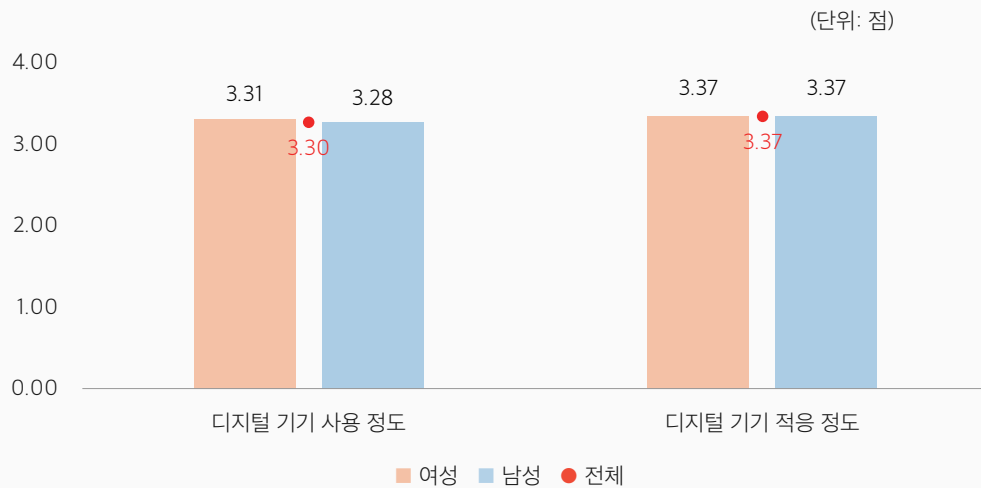
\* 그래프는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의 일자리와 남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의 일자리의 경우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와 '약간 더 증가할 것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를 합친 값이며,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의 경우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와 '약간 더 줄어든 것이다', '많이 줄어든 것이다'를 합친 값임. 표는 5점 척도로 측정함(1점 많이 줄어든 것이다~5점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 디지털 접근성 및 디지털 활용도

### ●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정도와 적응 정도에서 성별 격차는 크지 않음

- 현재 일자리에서 디지털 기기(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PC)를 사용하는 정도는 3.30점, 적응 정도는 3.37점으로 모두 보통(2.50)이상으로 나타남.
- 디지털 기기 사용 정도는 남성(3.28)보다 여성(3.31)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디지털 기기 적응 정도는 남성(3.37)과 여성(3.37)이 같게 나타남.
- 단, 종사상 지위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별 격차 역시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상용직 남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정도는 여성(3.47)이 남성(3.3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음.

<그림 2> 디지털 기기 사용 정도(n=3,732) 및 적응 정도(n=3,047)\*



종사상 지위	디지털 기기 사용 정도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비임금근로자		현재 일하지 않음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3.47	3.39	2.75	2.74	3.11	3.04	-	-
		t=-2.612**		t=-0.181		t=-0.834		-	
사회경제적 지위	디지털 기기 적응 정도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비임금근로자		현재 일하지 않음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3.41	3.38	3.26	3.31	3.24	3.28	-	-
		t=-1.209		t=0.755		t=-0.726		-	
사회경제적 지위	디지털 기기 사용 정도	하층		중하층		중층		중상층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3.12	3.11	3.27	3.23	3.38	3.36	3.37	3.34
		t=-0.191		t=-0.868		t=-0.473		t=-0.434	
사회경제적 지위	디지털 기기 적응 정도	하층		중하층		중층		중상층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3.27	3.27	3.32	3.34	3.40	3.39	3.47	3.41
		t=0.061		t=0.617		t=-0.039		t=-1.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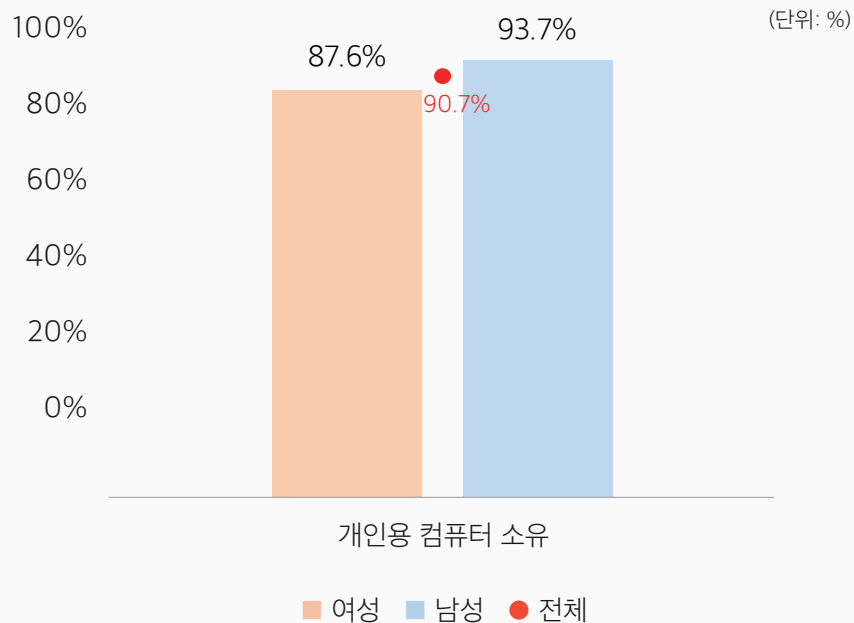
\*p<0.05, \*\*p<0.01, \*\*\*p<0.001

\* 4점 척도로 측정함(디지털 기기 적응 정도: 1점 전혀 적응 못함~4점 매우 잘 적응함).

● 개인용 컴퓨터 소유 비율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하며, 주관적 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성별 격차 더욱 커져

- 10명 중 약 9명이 개인용 컴퓨터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87.6%)보다 남성(93.7%)의 소유 비율이 약 6.1%p 높게 나타남.
- 종사상 지위 및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개인용 컴퓨터 소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사상 지위 중 일하지 않는 경우 여성 80.9%, 남성 90.4%, 사회경제적 지위 중 하층인 경우 여성 83.2%, 남성 93.8% 등으로 주관적 계층이 낮은 집단일수록 성별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남.

<그림 3> 개인용 컴퓨터 소유 비율(n=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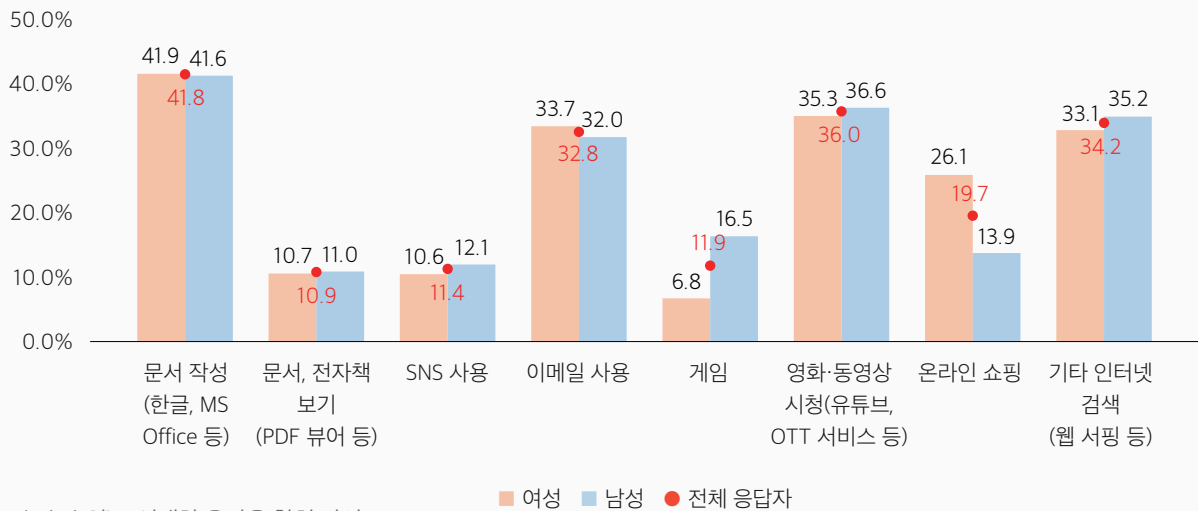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비임금근로자		현재 일하지 않음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91.7%	94.8%	88.5%	93.0%	89.8%	93.5%	80.9%	90.4%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중하층		중층		중상층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83.2%	93.8%	86.6%	93.7%	89.0%	94.0%	90.4%	93.0%

- 개인용 컴퓨터 사용 목적은 문서 작성(41.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영화·동영상 시청(36.0%), 기타 인터넷 검색(34.2%), 이메일 사용(32.8%), 온라인 쇼핑(19.7%), 게임(11.9%), SNS 사용(11.4%), 문서·전자책 보기(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문서 작성 목적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게임 목적 사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남성은 문서·전자책 보기 목적 사용이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 개인용 컴퓨터 사용 목적(n=4,53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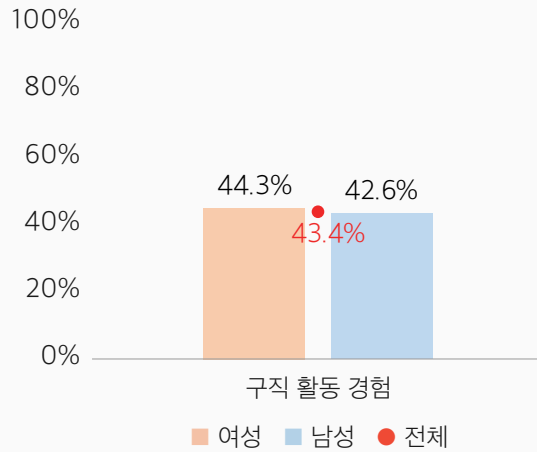
\* '1순위' 또는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을 합친 값임.

##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직 활동 경험률은 여성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용 PC 소유에 따라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조사대상 중 25.4%만이 '현재 일하지 않음'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10명 중 약 4명이 온라인 플랫폼(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구직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구직 활동 경험률은 여성(44.3%)이 남성(42.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사상 지위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 자영업자·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비임금근로자 집단에서 여성 51.9%, 남성 39.8%로 성별 격차가 12.1%p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또한, 개인용 컴퓨터 소유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직 경험률은 45.7%로 나타났으나 개인용 컴퓨터 미소유자는 이의 절반 수준인 21.8%로 나타남.

<그림 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직 및 구인 활동 경험(n=5,000)

(단위: %)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비임금근로자		현재 일하지 않음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47.4%	43.3%	54.4%	54.9%	51.9%	39.8%	34.7%	36.0%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중하층		중층		중상층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36.5%	38.2%	41.8%	41.2%	47.1%	44.6%	49.6%	44.3%
개인용 컴퓨터 소유 여부	소유				미소유			
	45.7%				21.8%			

## 마치며

-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여성·남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의 일자리는 현재와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이고,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도 현재와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함. 즉, 디지털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다만, 여성은 여성이 주로 일하는 일자리 감소에 대해, 남성은 남성이 주로 일하는 일자리 감소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우려를 나타냈으며,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확대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우려를 나타냄.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불안이 아직까지는 다소 막연한 상태임을 보여줌.
- 일자리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 정도는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격차가 크지 않았고, 디지털 기기 적응 정도에서는 성별 격차가 존재하지 않음. 다만, 사용 정도 측면에서 종사상 지위 중 상용직 정도는 경우 성별 격차(여성 3.47점, 남성 3.39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상용직 일자리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정도가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함. 그러나 이와 반대로 디지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초 요인인 개인용 컴퓨터 소유 비율은 성별 중 여성보다 남성에서 약 6.1%p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별 격차는 종사상 지위 중 일하지 않는 경우 9.5%p(여성 80.9%, 남성 90.4%), 사회경제적 지위 중 하층인 경우 10.6%p(여성 83.2%, 남성 93.8%)로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성별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남. 이는 계층간 자원 격차로 인한 디지털 격차 심화가 특히 여성에게 더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의 성별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직 활동 경험률은 43.4%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 정도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험률(42.6%) 보다 여성의 경험률(44.3%)이 다소 높게 나타남. 다만, 개인용 컴퓨터 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직활동 경험률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함(소유 45.7%, 미소유 21.8%). 디지털 전환에 따라 앞으로 일자리 정보 및 구직 기회를 얻는데 있어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직 기회 접근 측면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앞서 살펴본 성별, 종사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디지털 기기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종합해서 살펴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디지털 기기 사용 정도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직활동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한 적응 측면에서 여성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음을 확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 접근성 수준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특히 주관적 계층이 낮은 여성에서 더욱 낮게 나타났으므로, 디지털 인프라 접근에 있어 보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